

201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②	5	④
6	⑤	7	②	8	④	9	①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⑤	19	③	20	①
21	⑤	22	④	23	①	24	②	25	④
26	④	27	⑤	28	③	29	③	30	①
31	④	32	②	33	②	34	⑤	35	①
36	③	37	③	38	②	39	④	40	④
41	⑤	42	③	43	①	44	③	45	⑤
46	①	47	①	48	④	49	⑤	50	①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 화가 중에 ‘아펠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펠레스는 당대 최고의 화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었고, 왕실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 후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그는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그림을 화랑이 아닌 길가에 전시하여, 자신의 작품에 대해 누구나 내키는 대로 비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행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어느 날 신발 만드는 사람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잘못됐어.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의 신발 좀 봐. 이렇게 신발 끈을 꿰는 구멍이 작아서야 어디 신발 끈을 제대로 쥘 수나 있겠어?”

아펠레스는 부끄러웠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시 붓을 들어 그림의 신발 끈 꿰는 구멍을 넓게 그렸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 그림을 보더니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은 잘못됐어. 왼쪽에 맨발로 서 있는 사람 좀 봐. 이 사람의 발은 왜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이걸 그린 사람은 사람의 발을 제대로 보기도 했을까?”

그러자 참다못한 아펠레스가 튀어나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신발 만드는 사람이니 신발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1. [출제의도] 이야기의 교훈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가 아펠레스는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평가받겠다고 했고, 처음에는 그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자신이 세운 원칙을 깨고 만다. 이와 같은 아펠레스의 행동을 주목할 때,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들려주기에 적합한 사람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어기는 사람이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수학이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생활에 많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미로 찾기’입니다. 사람들은 미로를 보고 빠져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실사 판단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위상 수학’을 이용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상 수학에 의하면, 어떤 도형을 자르거나 없애지 않고 구부리거나 늘려서 만든 도형은 서로 길이나 모

양은 달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보기>에 있는 그림 [A]를 봐 주시겠습니까? 원 안에 쥐가 보일 겁니다. 이 쥐는 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원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의 모양을 늘리거나 몇 번을 구부러서 소용돌이를 만들어도 빠져 나올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쥐를 중심으로 직선을 아무 방향으로나 그어도 반드시 선과 홀수 번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보기>에 있는 그림 [B]를 봐 주세요. 이 쥐는 원 밖에 있기 때문에 원을 구부러서 소용돌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결국 소용돌이 밖에 있게 됩니다. 쥐를 중심으로 직선을 그으면 [A]와는 달리 반드시 선과 짝수 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발점으로부터 소용돌이 밖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소용돌이선과 짝수 번 만나느냐 홀수 번 만나느냐에 따라 그 쥐가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쥐를 중심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선과 홀수 번 만나면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짝수 번 만나면 미로를 빠져나온다. 따라서 직선을 그었을 때 6번 만나는 ③의 쥐는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 나머지는 선과 홀수 번 만난다.

[3]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능력이 없나 봐.

여학생 : 아니, 늘 당당하던 애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남학생 : 내가 이번 주 학급 주번이잖아. 그런데 동아리 일과 겹치는 바람에 주번을 바꿔보려고 했거든! 교실 게시판에 사정을 적은 메모까지 붙여 놓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더라고.

여학생 : 아, 그 메모! (웃음) 어휴, 공책을 북~뿔은 종이에 대충 갈긴 글씨로 써 놓았으니, 누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 봤겠니? 내가 보기엔, 너의 설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남학생 : 설득하는 방법이라니? 주번을 바꾸는 데에도 무슨 방법이 있던 말이야?

여학생 : 그림!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실험 참가자의 3분의 1에게는 설문지 작성에 대해 부탁하는 글을 메모지에 적어서 설문지 앞에 붙여 놓았어. 또 다른 3분의 1에게는 똑같은 말을 메모지가 아니라 설문지의 표지에 직접 써서 줬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에게는 메모지도 붙이지 않고 표지에 아무 것도 쓰지 않은 채 설문지만 주었대. 자, 어떤 사람들이 설문지를 가장 꼼꼼하게 작성했을 것 같니?

남학생 : 글썄.....

여학생 : 들어 봐.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메모지를 붙인 설문지를 받은 참가자는 75퍼센트 이상이 빈 칸을 다 채워서 제출했고, 표지에 글을 쓴 설문지를 받은 참가자는 48퍼센트, 설문지만 받은 참가자는 36퍼센트만이 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거야. 이 실험을 몇 차례에 걸쳐 반복했는데, 결과는 항상 비슷하게 나왔대. 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메모를 하는 것이 큰 힘이 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담긴 노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남학생 : 아, 알겠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교실 게시판에 메모를 붙일 때 ()

3. [출제의도] 대화의 끝에 이어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학생은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책을 찢어 자신의 사정을 갈겨써 놓았고, 그에 대해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학생은 실험의 상황과 결과를 들려주며 남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남학생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은 여학생의 말을 통해 깨달은 바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내용은 정성을 담아서 표현했어야 했다는 것이 적절하다.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휴대폰을 이용해 1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트위터’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측 토론자 : 트위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번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바로잡기 힘들습니 다. 선거철에 후보자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는 유권자들의 바른 판단을 가로막습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위터 선거 운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꼭 필요합니 다.

사회자 : 반대 측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측 토론자 : 요즘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트위터의 확산은 불가피합니 다. 트위터를 통해 오고 가는 수많은 정보 중 선거 관련 내용만을 차단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므로 타당하지도 않습니 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 토론자, 상대방 입론에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측 토론자 : 트위터는 투표율이 낮은 층에게 효과적인 선거 운동 수단입니 다. 현재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는데,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면 투표율을 더욱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 다.

사회자 : 다음은 찬성 측 토론자, 상대방 입론에 반론해 주십시오.

찬성 측 토론자 : 선거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 다. 관련 법안을 정비하면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 다.

사회자 : 이제 반대 측 토론자부터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반대 측 토론자 : 트위터에 올려지는 수많은 정보 중 선거에 관련된 내용만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 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 : 트위터에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올려졌을 때 벌어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 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들이 토론의 조건에 맞게 말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대 측 토론자의 상대방 입론에 대한 반론의 요지는 트위터 선거운동을 규제하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 내용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발언이 토론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의 공통점을 파악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측 토론자는 트위터를 통한 정보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면서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하였다. 반대 측 토론자는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트위터의 확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토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식물에 관심을 보여주면 그 식물도 이 관심에 호응하여 더 잘 자란다는 내용이다. 이를 글의 주제에 연결하면 '학습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도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A] 자료를 통해 고속도로의 통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CO₂의 발생량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진입 차량 통제 제도의 폐지'를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자아 정체성 미확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청소년의 윤리 의식 교육 강화'는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은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담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가 사용된 사례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보기>의 용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의미이다. 이 의미가 드러나는 용례는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와 같은 것이 된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첫 문장에서 '조선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드러낸 성곽 건축'이라는 구절을 통해 세계 자연 유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의 '효심을 품은 채 늘어서 있는 성곽의 늠름함'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에서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하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흥미로운 점'과 호응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온다'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어 '품사 통용'에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13~16] (현대소설) 이청준, '가면의 꿈'

1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명식을 관찰하고 있는 지연이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서술자는 지연이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지연이라는 인물이 서술하는 것처럼 하여 지연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명식의 변장에서 지연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동정과 스스로의 감동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에서처럼, 지연은 2층 서재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명식을 동정하고 있다. 또한 지연은 명식이 2층 서재에서 가면을 쓰고 휴식과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오히려 변장을 돕고 나섰다. 명식이 2층 서재로 들어박히는 것을 절대로 아는 체하지 않았다. 밤 외출의 유혹을 느끼는 눈치가 보이면 외등을 끄고 자신의 침실로 숨어 들어가 버림으로써 은밀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명식은 최연소로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현재는 직업이 관사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명식은 사무실에서 귀가할 때 피곤해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나면 활기를 얻고 있다. <보기>에 의하면, 이것은 페르소나에서부터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를 그림자 측면으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20] (기술) 유병용, '배의 흔들림 방지 기술'

17.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빌지킬은 마찰 저항을 이용하고 핀 안정기는 양력을 이용한다. 2문단에서는 마찰 저항을 이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이는 빌지킬에 대해 알 수 있고, 4문단에서는 양력을 이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이는 핀 안정기에 대해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선원들은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문의 내용 중에 안티 롤링 탱크의 U자형 관 안의 물도 동일한 역할을 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여 준다. 그러므로 지문의 U자형 관 안의 물과 <보기>의 선원들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배가 (가) 방향으로 기운다고 했으므로 ㉠은 위로 향하는 양력이 필요하고, ㉡는 아래로 향하는 양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위로 움직여야 한다.

20.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로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맞추다'는 '어떤 것을 무엇에 맞도록 하다.'의 뜻이므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조절'이다.

[21~23] (과학) 이수진, '바이러스'

21. [출제의도] 단락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드러내면서 바이러스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만 제시하고 있을 뿐 바이러스의 다양한 역할이나 기능이 따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핵심 내용에 드러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만들

어진 효소가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가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조합 DNA가 쓰인다. ㉡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 숙주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이므로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힘들다. ㉤ 조립 과정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합성된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23. [출제의도] 본문과 자료를 통해 타당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현대 의학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외부에서 합성하여 인체에 보충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인슐린을 합성하여 보충하는 것보다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에 드러난 현대의 당뇨병 치료법이 동물에게서 인슐린을 얻어내던 과거의 방법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기>와 관련지어 볼 때에는 근본적인 당뇨병 치료를 이루어 내지는 못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4~27] (현대시) (가)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박재삼, '한' / (다) 이진청, '하류'

2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눈 오는 날 떠난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저승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다)는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린 '나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5.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 ㉢과 마찬가지로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쓴이의 창작 의도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D에서 '새로 말하면'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시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C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그 사람'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E에서는 '그 사람'도 설움으로 살았는지 모른다는 추측을 통해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심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7.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감나무쫂 되라'에 설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 (다)의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에서 의인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의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에서 시각을 청각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1연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나)에서는 '~물라!', (다)에서는 '-었네.'가 포함된 문장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30] (언어) 심제기, '국어의 어휘 구조와 특징'

2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한자음이 변하여 고유어처럼 쓰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고유어와 결합할 때는 한자음이 변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출(家出)'은 '집[家]을 나가다[出]'라는 뜻이므로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오는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ㄷ을 보고 모든 한자어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3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조어 방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슬기롭다'의 '슬기'는 '사물의 이치를 밝혀 시비를 가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 내는 재능'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31~34] (예술) 진중권, '서양 예술의 자연관'

31.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는 서양 예술의 주된 소재가 자연이며, 예술가에 따라 자연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리고 2문단부터 5문단까지는 순차적으로 자연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 사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각 예술 사조의 예술가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그림은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그림에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자연관이 잘 드러나 있다. 화가는 그림에서 먹구름이 물러드는 하늘과 거칠게 일렁이는 바다와 힘없이 흔들리는 배를 대비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드러내려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②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자연관에 해당한다.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전주의 예술가들(㉠)은 자연물은 아름다운 부분과 결함이 있는 부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중에 아름다운 부분만을 모방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려 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술 작품이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애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자연의 정신과 가치를 닮으려고 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술 작품이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4. [출제의도] 정보와 관련된 적절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생태 예술가들이 추구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관계 맺는 방법이란, 인공물이지만 자연물로 보이게 할 정도로 자연과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어도비 건축물'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이용해 만들었으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35~37] (인문) 윌 듀란트, '선협적 감성론'

35. [출제의도] 글쓴이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서술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핵심으로 삼은 개념은 감성(감각을 지각

으로 인식하는 힘)이다. 감성의 형식적 틀인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까지의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개념 자체의 변화 과정은 다루지 않고 있다.

36. [출제의도] 관련 맥락의 글을 읽고 제시문의 입장에서 비판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칸트는 인간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인식의 틀로 공간과 감각을 들고 있다. 공간과 감각은 경험과 무관하게 있는, 감각을 정리하고 지휘하는 인식의 틀이다. 결국 칸트는 경험주의자와는 달리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인간의 인식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인식 주체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한 철학자라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내포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간과 시간은 감각을 지각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틀이다. 다시 말하면 감각을 지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분류와 정리의 기준인 것이다. 지각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아니다. 지각을 정리하여 개념으로 만드는 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범주라고 한다.

[38~42] (갈래 복합) (가)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蓑花白鷺)' / (나) 박인로,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 / (다) 이태준, '파초'

38.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다)는 자연물과의 친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나)에서는 '바위'에 대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파초'에 대한 친밀감으로 인해 고조되는 감정을 그리고 있다.

3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전체적인 시상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백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 반면에 '사람들'은 백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는 '백로'의 모습에 대한 대비적 이해를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백로를 물고기를 잡아먹겠다는 욕심 즉, 기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백로를 고고한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40. [출제의도] 시어가 작품에서 갖는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대상이 처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은 백로의 털옷을 벗게 하여 화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해서까지도 고기를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기심을 잊고 고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한다. 또한 ㉡는 파초가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줌을 드러내어 파초의 긍정적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41. [출제의도]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만고의 허다 영웅'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바위의 참된 가치를 알고 반가워하던 훌륭한 선인들이다. 그런데 <제8수>에서 바위는 화자를 '만고의 허다 영웅'에 포함시켜 '오늘사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화자 자신을 영웅과 비슷한 인물로 이끌어 올린 것이지 바위를 고고하게 치켜 올린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글쓴이의 심리와 그 원인을 추리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파초를 팔라고 자꾸 권하는 앞집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앞집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언짢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앞집 사람이 파초를 보살피 주고 신경 써 주는 것에 한편으로는 고마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집 사람과 글쓴이는 파초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43~46]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전우치전(나손본)'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전우치의 말('소신이 황제를 속인 이유는 ~ 사신을 보낸 것이옵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치의 말에서 '조선을 소국이라고 업신여기움기로 소신이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오나 그 일이 통분하여'를 보면 전우치가 대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나)는 임금이 경험하는 비현실적 체험에 주목하여 사건이 전개될 뿐 전우치의 행위나 전우치가 중국에서 행한 일에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은 드러나지 않는다.

4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금은 전우치가 재주를 부려 임금 자신의 의식을 조종한 것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 이에 전우치는 임금의 경험을 다 말하여 자신이 조종한 행위임을 일깨우고 있다.

46. [출제의도] 한자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임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따라서 ㉠ 백척간두(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를 통해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47~50] (사회) 조영달, '정보 탐색 행위'

47.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컴퓨터 구입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더 많은 상품이 판매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48.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면, 한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탐색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4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여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정보를 통해 절약할 수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과 같이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의 이유는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5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어떤 일에 기울이는 마음이나 노력'을 뜻한다. ㉠번 또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